

2021 THEME 믿음의 태도가 신앙의 고도를 결정한다

- I = Imaginative Ministry [창의적 사역]
- M = Making Disciples [제자 양육]
- P = Passionate Worship [열정적 예배]
- A = Action for the Gospel [복음의 실천]
- C = Community Outreach [이웃 섬김]
- T = Training Missionaries [선교사 양성] & Transforming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킴]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el: 949.854.4010 ◆ www.bkc.org ◆ bethel@bkc.org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18-36개월) / 본당 2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37개월-Preschool) / 할렐루야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K-1(킨더-1학년)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스튜디오),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비전채플), 11:00AM(스튜디오)
- 한어중고등부(CIM) / 살롬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소망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11:00AM, 2:00P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BS TV 채널 20.12 · 주일/오전 11시(Live)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2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8시 30분 · 목요일/오후 1시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일예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e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l 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 기도 Prayer All together **다같이**
1부/김정운 장로 2부/김정태 장로 3부/김종학 집사 4부/김준희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빌립보서 4:20-23 All together **다같이**
4부/사무엘상 16:1-23
- 말씀 Message 1, 2, 3부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기쁨으로 리셋(26) 가이사집에도 찾아온 은혜
4부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세상의 끝, 하나님의 시작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은혜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지금까지 지내온 것(찬460/새301장)

*축도 Benediction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스파이더맨 vs. 갓맨

Spiderman vs. God-man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요즘 화제가 되는 스파이더맨 영화가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전 세계의 영화관이 문을 닫은지 2년 만에, 비로소 열리면서 시기적절하게 출시된 [스파이더맨-노웨이홈]이 블록버스터 유행을 이끌고 있습니다. 원래 스파이더맨은 1960년대 만화책에 나온 수퍼히어로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와 같이 자랐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TV 만화 프로그램으로, 또한 여러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야기는 평범했던 피터 파커라는 인물이 방사능에 쏘인 거미에게 물리면서 시작됩니다. 신비한 거미의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능력이라든지, 평면에 거꾸로 붙어 걸어 다니며 손목에서 강력한 거미줄을 뿜어내며, 빌딩과 빌딩 사이를 날아다니는 초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맘에 드는 여자에게 고백도 못 하던 심약한 피터 파커는 뉴욕 퀸즈에 살던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비행기 사고로 죽고, 삼촌 집에서 얽혀살면서 자신감이 없는 청소년기를 보냅니다. 학교에서 왕따당하던 학생이,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사회생활에도 잘 적응하지 못하고 외로움을 타는 모태솔로로 살다가 거미에 물린 사건은 그의 인생에 대반전이 됩니다. 이제는 가면 뒤에서 스파이더맨으로 활약하며 몰래 좋아하는 여자 친구를 위기에서 구해 주기도 하고, 사회의 악당들을 제거하면서 국민의 영웅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더 큰 힘에는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삼촌의 말을 좌우 명으로 삼고, 스파이더맨은 그 신비한 능력을 가면 뒤에서 행사하며 자기의 신분을 감추며 삽니다. 사람이지만, 보통 사람과 다른 초능력의 소유자입니다. 가면을 벗으면 평범한 남자로 돌아가지만, 스파이더 가면을 쓰면 용감하게 악당을 처리하는 초능력의 수퍼히어로가 됩니다.

저는 스파이더맨의 매력에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능력으로 사람 살리는 영웅적인 일을 하는데, 실제 스파이더맨이 피터 파커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큰일을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랄 텐데, 피터 파커는 자기가 스파이더맨인 것을 숨기고 계속 남을 살리는 일을 조용히 하고 사라집니다. 웬만하며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 놓고, 품나게 악당을 처리하고, 나라를 구하는 영웅이 될 법한데, 스파이더맨은 자기 정체를 숨기고 그 모든 일을 가면 뒤에서 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스파이더맨이 오랫동안 우리 곁에서 사라지지 않은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갓맨 God-man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면에서 스파이더맨과 비슷합니다. 사람이지만 하나님인 예수님은 결코 자기 영광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 십자가를 져야 했지만, 12명 더 되는 천사를 부릴 수 있는 분이 될 짝은 자 앞의 어린 양처럼 잠잠하십니다 (마 26장). 한해의 마지막에 서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애썼던 날들을 뒤돌아보고 회개하며, 스파이더맨에게서 자기희생의 한 수를 배우기 위해 영화관으로, 아니, 송구영신 예배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보면 어떨까요?

Spiderman movie is a big topic nowadays. It has been 2 years since movie theatres closed doors due to pandemic. As the movie theatres began to open, [Spiderman-No Way Home] was released just in time to lead a way to a blockbuster movie. Spiderman is a super hero that first appeared in 1960's comic books. It's probably not wrong to say that I grew up with it. However, this super hero has embraced people's hearts and has been made into cartoons on TV and many movies. The story begins with an average boy, Peter Parker who was bitten by a spider exposed to radiation. He receives amazing spider powers. For example, he is able to sense danger before it occurs. He is able to attach himself to vertical surfaces and walk upside down. He becomes a person with super power who can shoot out strong spiderweb from his wrist to fly from building to building. Peter Parker was a high school student from Queens, N.Y., who was too shy to confess to a girl he liked. His parents died from a plane crash. He was a teenager, with low self-esteem, living with his uncle. He was bullied as a student. Even as a freelance photographer, he was not adjusting well to society. He was a loner. But the spider bite incident changed his life. He actively works as Spiderman in secret, saving the girl he had crush on from danger, eliminating evil people from society, and becomes people's hero. What his uncle said, 'With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 becomes his motto. He hides his identity while doing amazing things behind his mask. He is a person but, unlike an average person, he possesses super power. He is normal when his mask is off, but when the mask is on, he becomes a super hero courageously fighting evil.

This is where I find Spiderman's charm. With super power, he heroically saves people. But, no one knows that Peter Parker is the Spiderman. When people do great work, they want to be recognized. But Peter Parker hides his identity as Spiderman, and continues to quietly save people only to disappear. You would think that he would want to reveal his identity and fight evil in open and become a hero. But he hides his identity and does everything behind his mask. Perhaps this is the reason why the story of Spiderman did not disappear, and is still around us.

From that perspective, Jesus Christ, who came as God-man, is similar to Spiderman. Jesus, who is a man but also God, does not work for his own glory. He had to carry the cross in midst of people's envy and jealousy. He who could summon more than 12 legions of angels remained silent as a lamb before a shearer (Matt 26). As we look back on this year, we repent how we struggled to be recognized. To learn self-sacrifice from Spiderman, we might head toward a movie theatre. Better yet, how about if we make our steps toward New Year's Worship service?

주일설교시리즈 빌립보서 강해 -제26편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기쁨으로 **리셋** 가이사집에도 찾아온 은혜
(빌 4:20-23)



1. 선교헌금에 대한 설명을 마친 바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20절, 참고/ 빌 1:20-21)

적용하기



2. 바울은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합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21a)

3. 바울과 더불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자 중 누가 끼어 있습니까? 왜 그것이 고무적일까요?(22절)

4. 바울의 서신은 항상 이 문장으로 끝난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 핵심이 무엇일까요?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이것이 있나요?(23절)

■ 적용찬양: 은혜

2021 베델뉴스팀 편집후기

고요한밤 거룩한밤 카톡 카톡~

매달 기획 회의로, 매주 문자와 이메일로.. 어쩌면 가장 활발히 교회의 이모저모를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사역임이 분명합니다. 언제나 따스한 인사로 반겨주시는 베델뉴스팀원 분들의 귀한 섬김덕에 교회를, 교회를 사랑하는 법을 더 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강수연 자매

2021년 한 해도 교회학교 소식으로 주님은 주보 6면 상을 채워 주셨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훈련을 통하여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우리 자녀들의 소식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2022년, 주님이 이루실 위대한 일을 기대로 기도하며 베델의 2세, 3세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김선홍 권사

오늘 하루의 호흡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매 순간이 바로 은혜였음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더욱 더 깊은 감사로 다가옵니다. 매주 주보에 새겨진 하나님을 향한 절절한 고백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위로와 따뜻한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읽히는 한 성도님의 말씀에, 내년 한 해도 힘차게 시작할 힘을 얻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받은 은혜 아낌없이 나눠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지연 집사

한정된 지면으로 글 주신 성도분들의 섬김과 정성이 은혜의 간증과 함께 모두 실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또한 베델 45년을 돌아보는 올해, 기사를 준비하면서 그 긴 시간 동안 주보가 있었음에 주보팀으로서 좀 더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김휴리 집사

올해는 예배가 팬데믹으로 인하여 닫혀 있다가 대면 예배로 점차 열려가는 상황에서 사진 기자로서 현장을 취재하면서, 그리움을 지

나온 만남이 이렇게 큰 기쁨을 주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서로 뵙지 못한 목회진과 성도들간의 벅찬 기쁨의 만남, 비록 마스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눈빛으로 오가는 환희로 가득 찬 모습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밝아오는 새해엔 더욱 예배를 사모하며, 베델 캠퍼스가 환희와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박성곤 장로

남들께 전하고 은혜와 간증을 제일 먼저 받게 되는 경험 또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이야기를 글로 전달하는 베델뉴스팀에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예진 집사

성도님들의 은혜를 두 손 가득 넘치게 담아 온전히 전달하고자 애썼던 시간들은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다음 주, 벌써 기획 회의 날이 돌아옵니다. 숨 한번 크게 쉬면 한 주요, 두 번 쉬니 한 달이고, 일 년이 빠릅니다. 수고하신 편집실 박선경 간사님과 이충경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매주 섬 없이 나가는 기사를 단 한 번의 거절 없이 각 삶의 현장에서 감당하신 기자들과 사진팀, 마감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내어 주신 교정팀에 뜨거운 맘으로 깊은 감사 전합니다.

유미경 권사

팬데믹으로 모든 것이 반으로 접혀 버린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빛이 되어 성도들 곁에 다가갈 수 있을까, 베델뉴스팀은 고민했습니다. 저도 베델뉴스팀과 함께 고민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베델뉴스는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베델뉴스가 반으로 접혀 버린 세상에 살다가 예배를 드리러 나온 성도들에게, 반으로 접힌 주보를 펼칠 때마다 영혼도 얼굴도 활짝 펴게 하는 코로나 시대의 빛이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이충경 목사



박성곤 장로

한 분 한 분의 원고들을 교정하며 하나님이 부여 주신 가능할 수 없는 은혜의 크기를 실감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하는 빛 찬 기대와 설렘을 소망하며 2022년, 하나님을 향한 베델 성도님들의 더 짝한 러브레터도 기대합니다.

박인주 집사

올해, 제게 귀하고 귀한 일은 주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베델뉴스팀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매주 아홉 페이지의 지면이 여러분들의 정성과 기도로 채워짐이 은혜입니다. 밤잠 설치며 수고해 주신 팀장님과 팀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정원 집사

15년 전 '참 잘 오셨습니다!' 맞아주던 주차장, 뜨거운 눈물의 베델 동산, 찬양하던 성가대, 온기가득한 부엌, 아이들을 키워준 비전센터... 베델의 곳곳마다 사랑의 추억이 가득합니다. 미처 인사드리지 못한 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Goodbye 말고 See You Again!

박진아 권사



Yeah!! 은혜 한아름 배달왔어요~

두툼한 주보를 받아들이고, 행간에 눈을 맞추며 읽다 보면 어느새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감동이 예배 전부터 시작됩니다. 베델가족의 간증, 사역 현장의 소식까지 한 주도 쉬지 않고 달려온 베델 뉴스. 작은 것 하나까지도 꼼꼼히 살피는 뉴스팀의 기획 회의에서 숨은 수고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룩한 책임감을 가진 신입 기자로 감사하다 고백하며, 다가오는 2022년 은혜로운 베델 사역의 현장을 기록하고 전달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정지혜 집사

쉽지 않은 시기임에도 한 주도 빠짐없이 달려온 베델뉴스였습니다. 지면을 채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원고청탁에 거절 한번 없이 수락해 주신 성도님들 덕분에 늘 감사했습니다. 목사님과 팀장님, 팀원들이 한마음 되어 섬길 수 있는 베델 뉴스팀, 사랑합니다.

최경희 권사

지난 2021년에는 팬데믹으로 닫혔던 교회의 문이 다시 열리며 현장 예배의 소중함, 성도간의 교제의 기쁨, 섬김 가운데 누리는 은혜를 새삼 감사하며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웠던 세례식과 성찬식, 어려운 가운데도 교회로 찾아온 소중한 새가족분들 환영회, 교회학교의 Fall Family Festival, 또 온 성도가 기쁨으로 함께한 추수 감사 축제까지, 교회의 예배와 많은 사역이 다시 시작되는 그 현장에서 베델뉴스팀과 함께 사진 사역으로 섬기며 그 현장과 감동을 사진으로 담아내고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최호경 집사

회사일 대신 베델 뉴스로 마주하는 깊은 밤의 모니터를 켤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델 뉴스를 읽으며 나를 만나게 될 한 사람이, 지구

상 어딘가에는 있다." 씨주심에 늘 감사로 또다시 새 힘을 얻던 지난 일년. 그저, 은혜였습니다.

허성숙

베델 뉴스를 통하여 은혜받는 성도님들을 생각합니다. 베델뉴스가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었기를 소망하며, 2022년에도 따끈따끈하고 블링블링하며 은혜은혜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황수정



특별기획 - 돌파 코로나 '베델이 간다!'(3)

조금도 부족함 없이..

비록 예배의 문은 다시 닫혔지만, 야외에서의 모임은 가능하다는 소식에 베델교회는 거부감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인 토요일 오후, 교회 앞마당에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드리는 0 부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야외에서 진행된 세례식과 성찬식은 모일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팬데믹 상황에서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었던 은혜의 현장이었습니다.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일 년을 기다려온 여름 성경학교 VBS 역시 중단될 수 없었습니다. 사랑과 열정으로 베델의 어린아이들을 품어오신 많은 교사들과 봉사자들의 헌신을 통해, 영상으로 제작된 VBS는 각 가정에서 기다리고 있는 베델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방문하여, 반가운 만남을 가졌습니다. 또한, 여름휴가철을 맞아 아무 데도 갈 수 없는 성도들에게 가상의 휴양지를 배경으로 촬영된 아침 영상 메시지는 100회를 맞이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다양한 이야기로 성도들을 찾아가

는 수요 프로젝트 주보님, 우리 셀이 뭉쳤다, 나는 선지자다 등의 프로그램은 카톡 채널을 통해 성도들과 소통하는 방송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모두가 코비드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얼바인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긴박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황급히 집을 빠져 나와야 하는 분들을 위해 체육관과 교회학교 교실을 임시 숙소로 마련하여 음식과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하여 갑작스러운 재난을 당한 베델 성도들뿐 아니라 많은 지역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온,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된 Family Fall Festival 이 성황리에 열렸고, 가족과 셀 친구, 목회자와 팬데믹 기간 중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는 감사 챌린지도 진행되었습니다.

'믿음의 태도가 신앙의 고도를 결정한다'는 주제로 시작된 2021년, 베델교회는 새로운 주제가 '믿음 in 21'으로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처음 온라인으로 진행된 엘리야 특별 새벽 기도회는 생방송 접속만 1300명이 넘는 역대 최고의 참여율을 보였고, 줌으로 강단 기도회를 하는 특별한 예배로 이어졌습니다. 베델 한국학교, 선교박람회, 일반인을 위한 BAM 선교훈련도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고, 선교사와의 만남에 이어 단기선교까지 온라인에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월이 되고 백신접종자가 많아지면서 현장예배를 다시 열 수 있다는 반갑고 감사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100명이라는 제한된 숫자이지만, 다양한 온

라인 사역을 해왔던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은혜롭고 풍성한 현장예배를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다음 주 계속]



목회자 인터뷰

김형직 목사



1. 베델 교회에 부임하신 소감을 나누어 주세요.

베델교회는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COVID-19과 같은 어려움에도 거침없이 달려가는 교회라는 것을 확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베델교회에 와서 들은 설교 말씀 중 목사님께서 바닷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을 때 사모님의 "정신 차려!"라는 말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위기를 넘겼다는 설교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고 패닉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 바짝 차

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굳건히 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2. 목사님의 신앙적 배경과 가족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고 교회학교를 열심히 다녔던 것이 지금의 제 신앙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아부 성가대를 시작으로 중, 고등부로 이어진 성가대 봉사는 제가 음악을 전공하게 된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족으로는 아내 장형숙 사모, 두 딸 은솔, 은샘이가 있습니다.

3.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 말씀해 주세요.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21절 말씀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좋아하는 "은혜아니면"이라는 찬양곡의 가사 배경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나의 자아가 남아 내 안에서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사역할 수 있는 것이 나의 능력 아닌 오직 주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깁니다.

4. 앞으로의 비전과 사역에 대한 각오 나눠주세요

제가 연주학 박사 과정에 있으면서 지휘자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지휘자로서 하나님 사역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을까, 찬양대 지휘자의 역할은 무엇일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고민 끝에 지휘자의 역할에 대해 세 가지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께 아름다운 음악을 올려드리는 "음악가"의 역할, 두 번째는 "신학자(목회자)"의 직분입니다. 하나님께 아름다운 음악을 올려드리는 것만으로는 찬양이 될 수 없습니다. 깊은 하나님의 교제와 묵상이 있어야 하며, 찬양대를 신앙으로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교육자"의 역할입니다. 찬양대가 "음악"으로 찬양을 하는 것이 니만큼 음악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지휘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신학, 음악 교육학 석, 박사학위를 끝내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베델 콰이어와 오케스트라에 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베델 선교

기다림의 시간

COVID19로 인한 팬데믹 기간은 편치 않은 긴 기다림의 시간이었지만 끔찍이 돌아와 보니 주님이 한결같이 함께하셨음에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고 뭉클해졌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을 읽고 삶을 나누고, 학교를 지키며 매일 예배를 올려드린 교사들이 얼마나 대견하고 든든한 지 이 모두가 주님의 은혜임을 느낍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제가 돌아온 것이 소문이 났는지 사람들이 얼굴만 바라보며 웃기만 하다 돌아가기도 하고, 망고와 바나나 몇 개를 들고 오고, 쌀을 많이 들고 와서 웃으며 놓고 갔습니다. 이제 정말 끔찍이 동네 사람이 된 것을 느끼며 이곳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낍니다. 모기와와 전쟁, 가끔 나타나는 뱀 같은 환경적인 요인은 잠시 불편할 뿐이지 선교지에서의 걸림돌이 되지는 못합니다.

교회에 기도 제목으로 올렸던 쓰러이마이 선생님은 코로나 치료를 잘 받고 건강한 아들을 선물로 받았고, 4년여 동안 기도 제목이었던 사역을 돕던 썩져 형제가 알콜 중독에서 벗어나 술을 끊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썩져 형제에게 임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연말 결산을 하며 한 해를 돌아보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으로 힘든 선교사님과 학교에서 치료할 수 없는 가난한 동네 사람들 병원비 지원과 부활절, 성탄절의 구제 사역 등 지나고 나니 계산은 마이너스인데 교사들과 우리 아이들을 풍성하게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계산법임에 어떤 방법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어떤 계획으로 우리를 사용하실지, 어떤 영혼을 붙여주실지 대가 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New Hope School과 교회 위에,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끔찍이 마을에 임하여 복음이 널리 전파되길 기도합니다. 베델의 식구들이 함께한다는 것이 저희에게는 항상 힘이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순현 & 황원주 선교사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 기획/행정: 정승락 목사
- 믿음 목장/예배/목회지원: 김형균 목사
- 소망 목장/선교: 주성필 목사
- 사랑 목장/훈련/베델뉴스/기도: 이충경 목사
- 은혜 목장/전도/이웃사랑: 김홍식 목사
- 화평 목장/베델위십/샬: 박경철 목사
- 새가족/경조: 한순교 전도사
- BGC: Justin Kim 목사
- BGC(Family): Dan Nam 목사
- BGC(College/Worship): Peter Lee 전도사
- 일본어 예배/헬시바: 손용주 목사
- 예삼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 예삼채플: 공병주 전도사
- 예삼채플: 김유미 전도사
- 영어고등부: 여옥제(John) 목사
-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 한어중등부: 이형석 전도사
- 교회학교 디렉터: 이진아(Jinah) 전도사
-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 K-1: 정가영(April) 전도사
- 유아부: 장지은(Jieun) 전도사
- 영아부: 이진영 전도사
-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 통역/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성가대 및 찬양팀◎

- 지휘자: 김형직 목사
- 솔리스트: 최정원
- 뮤직디렉터: 정봉화

◎사역 간사 및 인턴◎

-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 한어권: 정티나 간사
- 영어중등부: Grace Park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 사무장: 마현진
-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 사무실: 안현미, 박성혜
- 재정실: 이수민
-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 음향: 강창위
- 방송실: 최중형, 김지현
- 디자인: 박선경
- 웹: 김정아
- 수양관: 오춘란

지역광고

2021 송구영신 예배

"믿음의 태도가 신앙의 고도를 높인다"라는 슬로건을 외치면서 시작한 2021년.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2021년 한 해가 어느덧 저물어가고, 이제 한 주 후에는 2022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상기하며 감사함으로 채우는 송구영신 예배 2021년의 마지막 시간을 마무리하고, 2022년의 첫 시간을 함께 여는 뜻깊은 예배에 베델의 성도님과 가족 모두를 초대합니다.

전에 없던 혼란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도 베델의 예배는 쉽 없이 계속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잠시 주춤할 겨를도 없이 오히려 온라인 사역을 비롯해 계속해서 수많은 사역이 펼쳐졌던 한 해였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아침 영상 메시지가 작년에 이어 올 한 해도 성도들의 아침을 말씀으로 시작하게 했으며,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고, 그들을 찾아가 위로했습니다. 올 한 해도 베델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돌보는 신앙공동체로서 풍성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성도님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루하루 주님이 공급하시는 생명과 사랑으로 이어졌음을 고백하고, 2022년에도 새로운 은혜로 채워 주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대해 봅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부와 2부로 드려집니다. 저녁 7시 예배와 밤 10시 30분 예배 중 편하신 시간에 나오셔서 올 한 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새해에 품고 나가야 할 비전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온 성도들은 2022년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새해 기도 제목(My One Prayer)과 신년 감사헌금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귀한 자리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의 감격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 ▶ 일시: 12월 31일(금) 1부-오후 7시, 2부-오후 10시 30분
- ▶ 장소: 베델교회 본당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1월)	1/2: ①부-이선갑 ②부-변준호 ③부-홍대원 ④부-유승빈
	1/9: ①부-김광영 ②부-김진성 ③부-김주홍 ④부-윤세희
	1/16: ①부-김병수 ②부-김진원 ③부-김창남 ④부-이영진
헵시바토요새벽 대표기도(1월)	1/1: 송구영신예배 1/8: 열새 1/15: 김광경 1/22: 김경수
강단꽃(12,1월)	12/26: 김학남, 박창현 1/2: 기승호, 김종현, 김한요 1/9: 김성희 1/16: 무명

선교후원

- [팍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이바나바(옥소리),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루마니아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 [협력선교사] 과테말라 실버 | 유한성(유영옥) 기니비사우 | 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석(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경),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필리핀 | 김송봉(유영선)
- 창의적접근지역 | 류진, 온세상, 이희숙, 차은경, 김예평(김진명)
-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네이버스선교회, 멕시코 장로회 신학교, 밀알선교회, 바실레리아 신학교, 한미가정상담소, GP미주본부, Good News Spreaders(GNS), JAMA,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BS, CTS, CGN TV
-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리판

Bethel Announcements

◆ 2022 엘리야 특별새벽기도회 Go Deeper, Go Higher!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더 깊이 무릎 꿇고, 더 높이 믿음으로 날아오르는 엘리야특별새벽기도회에 베델의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일시: 2022년 1월 3일-1월 8일(월-금 오전 5시, 토 오전 5시 30분)
강사: 김한요 목사(베델교회), 박석훈 목사(멕시코 우리교회), 홍기영 목사(분당 창조교회)

◆ 송구영신예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걷고 뛰었던 2021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는 송구영신예배가 1,2부로 각각 드려집니다. 한 해를 보내는 감사, 새해를 맞는 기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에 온 가정이 함께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장소 : 12월 31일(금) 1부-저녁 7시, 2부-저녁 10시 30분, 본당
*송구영신예배 때 신년 감사헌금과 My one prayer(1년 기도제목)을 드립니다.
(1월 1일 토요일 새벽기도회는 송구영신예배로 대체 됩니다)

◆ 돌파 코로나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 겪었던 어려움과 변화를 베델교회가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하여 지금까지 지내왔는지를 보는 특집 기획 다큐 '돌파 코로나-베델이 간다' 네번째 시간이 이번 주 수요일에 유튜브를 통해 방송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일시/유튜브 주소: 12월 29일(수) 오전 10시, youtube.com/BethelKoreanChurch

◆ MY ONE PRAYER 신청 2022년 꼭 응답 받기 원하는 한가지 기도제목을 받습니다. 엘새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한 해 동안 계속해서 담당 목장 목회자가 기도할 것입니다. 신청은 교회 홈페이지와 카톡 채널을 통해 하실 수 있고, 교회 사무실에 기도 카드가 비치되어 있으니 오셔서 직접 적어주셔도 됩니다.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담당 목회자나 행정사무실로 전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근무시간: 교회 사무실 (949)854-4010, 화-토 오전 9시-오후 5시, 주일 오전 8시-오후 4시

◆ QTin 영어 번역 자원봉사자 모집 베델교회에서 온 가족이 함께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기 위해 큐티인 번역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 세대가 함께 같은 말씀으로 큐티할 2022년을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 한글을 영어로 번역, 또는 Editing/Proofreading 가능한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

필요한 분야: - 영어 번역: 새싹 큐티(유치부), 어린이 큐티(유년, 초등), 청소년 큐티

- Editing and proofreading
문의: 정승락 목사 (714)512-1206, pauljeong@bkc.org

◆ BYM 중고등부 연합 겨울 수련회 자녀들이 서로를 알아가며 예수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련회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날짜/장소/대상: 12월 27일(월)-12월 29일(수), Irvine Ranch, 6-12학년
문의: 김학남 집사 (408)806-4133, 여옥제 목사 (818)270-5454

◆ BYM 중등부 크리스마스/연말 파티 BYM 중등부에서 12월 26일(주일) 예배 후에 크리스마스/연말 파티를 할 예정입니다. 점심이 제공되며, 많은 학생들이 올해 팬데믹 기간 동안 교회에서 즐길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는데, 이 파티를 통해 학생들이 다시 열정과 열심으로 남을 섬기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유미경 권사 ■ 사진: 박상근 장로, 최호경 집사
기자: 강수연 자매, 김선홍 권사, 김지연 집사, 김유리 집사, 박인주 집사, 박정원 집사, 박진아 권사, 안예진 집사, 정지혜 집사, 최경희 권사, 허성숙 집사, 황수정 집사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 CIM 한어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 "Align"이란 주제로 겨울 수련회가 열립니다. CIM 친구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며 깊은 교재의 시간이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간: 12월 28일(화)-30일(목)
장소: Hope Heaven (23062 FORLORI Cir, Perris, CA 92570)
강사: 주성필 목사
문의: 김도석 집사 (714)401-0532

◆ 목회자 특별새벽기도회 2021년 목회 사역과 엘리야 특별새벽기도회 준비를 위해 12월 28일(화)-12월 31일(금)까지 전체 교역자들이 미리 모여 기도모임을 갖습니다.

◆ 유년부 교사모집 2-3학년 부서를 섬기실 교사 및 보조 교사를 모집합니다.
보조교사: 2부 check in 및 셋업 보조교사 1명 (한어권 영어권 상관없음)
3부 check in 및 셋업 보조교사 1명 (한어권 영어권 상관없음)
교사: 2부 이중언어 교사 1명, 3부 한어권 교사 1명, 이중언어 교사 1명

◆ 교회학교 엘리야 새벽기도 자녀들도 엘리야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축복을 온 가족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6일 모두 개근한 학생은 Go Deeper Go Higher 특별 제작 후드티를 받습니다. 혹시 등록을 못 하신 분들은 각 부서 사역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 QTin 1월-2월 판매 1, 2월 QTin을 교회 카페에서 판매합니다. 새싹 큐티(유치부), 어린이 큐티(유년, 초등), 청소년 큐티, 장년, 영어를 판매하오니 2022년 한해를 깊은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 2022년 달력배부 2022년도 달력이 준비되었습니다. 필요하신 가정은 예배 후,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위로해 주세요
故 이진우 성도님(이상덕 집사의 부친, 이은미 집사의 시부)께서 12월 24일(금)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 베델교회 예배 전면 오픈 주일예배, 토요일 헵시바 기도회, 새벽기도 등 모든 예배가 전면 오픈이 되어 현장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열화상 카메라와 마스크 착용 및 예배 후 방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실시됩니다.
◆ 예배 후 즉시 출차 / 주차증 발급 안내 베델 캠퍼스는 주차증이 있는 성도님들에 한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으며 비전주차장(새벽 5시 30분-오후 1시 30분까지 셔틀 운행)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올 말까지 2020년 주차증을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새롭게 해당되는 분들은 주차사무실로 오셔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차증 발급 대상: ①임신 8개월부터의 산모 ②18개월 미만의 자녀를 두신 부모 ③80세 이상 몸이 불편하신 분 ④건강상의 이유로 교회 셔틀버스를 이용하실 수 없는 분

